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간 관계: 개별성-관계성의 조절효과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정 은 의* 노 안 영

전남대학교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의 관계에서 개별성-관계성의 조절효과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20세~50세의 기혼여성 529명이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의 관계에서 개별성-관계성 발달 수준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간의 관계가 개별성-관계성 발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성-관계성의 발달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개별성-관계성이 높을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의 행복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요인이 행복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성-관계성의 상호적인 발달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은 기혼여성의 개별성-관계성과 자아존중감의 발달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사회경제적 요인, 행복,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 조절효과, 매개효과

* 교신저자: 정은의, 전남대학교 심리학과(500-757),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Tel: 062-523-6881, E-mail: mjcenter@hanmail.net

행복의 원천에 대한 남녀 차이 연구(Argyle, 2001; Lu, 2000)에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직업 그리고 경제적인 만족도와 자신 스스로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지만 여성들은 자식과 가족의 건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의 행복 구성요인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에서 Ryff와 Keyes (1995)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여성들의 높은 주관적 만족감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국내 연구(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김혜원, 김명소, 2000)에서는 남성에게는 삶의 목적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한편, 여성에게는 개인적 성장과 앞으로의 삶에 변화의지가 있다는 것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여성들은 개인적 성장을 더 추구할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정서도 같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의 삶의 질 혹은 행복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Diener 1984;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하나는 성별, 연령, 소득, 교육, 보건, 여가 같은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흔히 안녕감(well-being)이라고 불리는 주관적인 측면이다. 이중, 초기의 연구들(조명한, 김상균, 1994;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학력, 직업, 결혼여부 등 상향적(bottom-up) 요인들의 영향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반면 다른 연구들(Diener, 1984, 1994; Myers & Diener, 1995)은 개인의 성격, 자아존중감, 적응능력 등 하향적(top-down) 요인들의 영향을 밝히는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고, 최근에는 상향적 요소와 하향적 요소의 관계성을 밝히는데 관심을 보인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상향적, 하향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Diener, Suh, Lucas, & Smith, 1999)는 행복은 개인이 생

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Bradburn, 1969; Campbell, 1976)이기 때문에 상향적 요인들은 단지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 지표들에 대한 추정된 결과를 제공할 뿐 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직업의 유무와 종류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은 개인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기혼여성들에게는 학벌 지향주의, 취업, 승진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제한과 불평등한 사회적 기회 제공 등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은 더욱 여성의 행복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기혼여성의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볼 때 사회경제적 요인 같은 상향적 요소와 개별성-관계성의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같은 하향적 요소가 모두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인 상향적 요소와 행복의 관계를 하향적 요소인 개별성-관계성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혼여성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성 있게 보고된 객관적인 변인 학력, 직업, 경제력 3가지 변인을 기혼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상향적 요소로 선정하였다.

학력이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Freudiger, 1979; Glenn & Weaver, 1981). Kessler (1982)는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부정정서의 관계 연구에서 남성에게는 직업적인 지위나 학력보다도 수입이 우울증 같은 부적인 정서를 가장 신뢰롭게 예측하는 반면에 여성에게는 교육수준이 부적인 정서의 강한 예측치임을 밝혔다. 기혼여성의 학력과 행복한 삶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라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 및 주위사람들의 사망과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낮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의 정도도 낮았다(김은정 외, 1999). 김명소 외(1999)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학력의 정도는 여성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를 예언하는데 가장 중요한 설명 변인(이순형, 1991; 이연숙 외, 1991; 임정빈, 정혜정, 1987)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성의 행복과 긍정적 정서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에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력의 정도에 따라 기혼여성들이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 행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직업의 여부와 개인이 지각하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행복과 관련이 있다(Tait, Padgette & Baldwin, 1989).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직업과 행복 간에 높은 상관을 보였고,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이나 다른 영역에서도 만족감을 보였다(Heady & Wearing, 1992; Judge & Watanabe, 1993). 남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차이 연구(Clark, 1996)에서 남성은 더 많은 급여, 더 높은 지위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지만 여성은 급여나 지위보다도 상사나 동료와의 좋은 인간관계가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여부에 따라 기혼여성들의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 행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많은 연구들(Campbell, et al., 1976; Diener & Biswas-Diener, 2000)은 소득과 주관적 안녕이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Myers(2000)는 개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도 행복과 관련되어 있지만, 객관적인 소득 자

체로도 그 사람의 주관적 안녕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Freudiger, 1979; Manicini & Orthner, 1980). West & Gildengorin(1998)연구에서 남성은 수입으로 인한 행복의 정도가 75,000달러 수준에서 안정되었지만 여성의 경우 가장 부유한 집단의 여성들은 두 번째로 낮은 수입의 집단 여성들 보다 더 우울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기혼여성의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Lorentz, Conger, Simon, & Whitebeck, 1991). 소득수준이 높은 취업주부들은 그렇지 않은 주부들에 비해 생활에 더 만족하고, 역할 갈등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사회적 지원 또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숙 외, 1991). 중년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월평균 소득이 많은 집단은 적은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희석, 2002).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았다(김은정 외, 1999).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혼여성들의 역할수행과 자녀양육에 따르는 행복과 우울이 수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들의 가구 소득의 정도에 따라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 행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학력, 직업, 월소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경제적인 요인은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긍정적 정서뿐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 가족과 자녀양육의 갈등에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력, 직업, 월소득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의 구성변인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Graziano, Jensen-Campbell 및 Finch(1997)는 자

기란 상황의 직접적인 요구를 개인의 성향과 인생 경험을 통해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행복 연구의 중요한 변인이라 주장하면서 개별성-관계성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개별성은 자기-타인의 관계에서 자기 쪽에 비중을 두어, 자기와 타인을 분명히 분리하고, 남과 다른 독특한 정체감의 추구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고 관계성은 타인 쪽에 비중을 두는 개념으로 타인과의 친밀한 유대 및 상호 의존적 통합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Boyatzis, 1973; McAdams & Constantian, 1983). 개별성-관계성은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두 가지 서로 다른 특성으로서 전생애에 걸쳐 변증법적(dialectical)으로 발달하는 변인으로 개별성-관계성의 적절한 조화와 통합이 성숙한 심리적 발달에 필수적인 중요한 과제가 된다(Guisinger & Blatt, 1994). 김지경과 김명소(2003)의 한국남녀의 관계적 자아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의 남녀 모두에게 개별성보다는 관계성이 중요하지만 관계성의 의미나 기대, 유지방식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최효일과 조혜자(1999)는 한국 중년여성의 관계적 자아표상에 관한 연구에서 중년여성들은 남성성의 긍정적인 특성을 자기개념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관계와 역할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개인의 자기개념 안에는 개별성과 관계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일상 생활에서는 상황에 적절한 자아의 측면이 표현될 때 적응적이고 긍정적으로 자기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개별적인 자아의 표현은 억제되고 언제나 관계적인 자아의 표현만이 강조되면서 여성들은 일상에서 많은 불행감과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김동순, 1992; 유지영, 김명자, 1996; 이정균, 1991; 황원

준, 정용균, 김종주, 1995; Nolen -Hoeksema & Rusting, 1999).

김동직(1999)은 개별성과 관계성의 균형 잡힌 발달수준이 심리적 적응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은이(2002)는 개별성-관계성의 발달수준이 일상적 창의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북한 이탈주민의 개별성-관계성의 발달수준이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적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정민, 이종한, 2004). 한기연(2003)의 연구에서 관계성이 발달한 개인이 개별성이 발달한 사람에 비해 자기위로 능력이 더 높고 관계성과 자기위로 능력 사이에서 사적 자의식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성-관계성 발달수준이 사회적 관계와 소외 및 고독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Ginter, Glauser, & Richmond, 1996; Rokach, Orjack, Cripps, Lackovic -Grgin, & Penezic, 2001)가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개별성과 관계성의 발달 수준은 객관적 요인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moderation)이란 두 변인 사이의 관계가 조절변인의 함수로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Baron & Kenny, 1986).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란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에 효과를 미치는 변인으로, 이 경우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면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행복에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개별성-관계성이라는 하향적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별성-관계성이 자기개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지각하는 자기개념을 평가하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Baumeister, 1998). 그러므로 개별성-관계성과

자아존중감은 자기개념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성-관계성을 통해 기혼여성의 자기개념 특성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고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적응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로 알려져 왔으며,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거나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밝혀졌다(김경신, 김오남, 1998; 김연희, 김기순, 2002; Lucas, Diener, & Suh, 1996; Kwan, Bond, & Singelis, 1997; Potter & Gosling, 2001; Traft, 1985). 중년 여성의 자아실현과 영향요인 연구(김숙영, 전은영, 김귀분, 서연옥, 2002)에서 자아실현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중요 변인임을 밝혔다. 이수애와 김정화(1998)는 여성이 지각하는 행복에는 자아존중감이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양복순(1998)의 중년 여성의 삶의 질과 갱년기 증상에 대한 연구에서 고학력일수록 사회적 지위의 확보가 용이하고 이에 따른 경제력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또한 직업이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자아개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과 직업에 종사하는 중년 여성은 일인 다역으로 부담과 역할갈등이 있으나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생활하기 때문에 무직상태에 있는 중년 여성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김혜영, 고효정, 1997; 이길자, 1991). 최외선과 손현숙(1991)은 자아존중감이 행복에 대한 객관적 요인의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김정자, 정영숙, 김경연, 심혜숙, 최원화, 최순, 김선희, 문소정(1998)의 연구에서도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건강, 교육수준 및 남편 직업 만족도 등 객관적 요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tir(1967)는 기혼여성의 자기 존중감이 결혼과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여성의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모의희와 김재환(2002)의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자아존중감은 부부 의사소통과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미례와 이인혜(2003)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성에게서는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동시에 보이고 있지만 여성에게서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우울간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아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보이지 않았고 자아존중감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여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자아존중감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매개(mediation)란 예언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를 매개변인이 설명하는 정도의 함수를 말한다(Baron & Kenny, 1986).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란 첫째,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둘째, 가정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셋째, 위 두 가지 경로가 통제 되었을 때 이전에 유의미 하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아야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자아존중감은 상향적 요소와 우울, 스트레스,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복이나 긍정적인 정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되어진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이 행복과 관련되어있는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모형 및 가설

개별성-관계성 조절효과 연구모형

기혼여성 사회경제적 요인, 개별성-관계성, 행복의 관계 및 조절효과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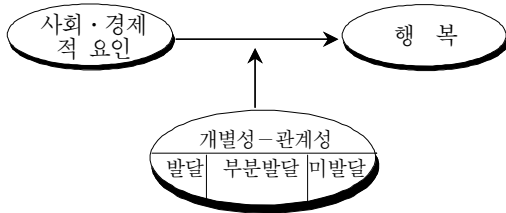


그림 1. 조절효과 연구 모형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연구모형

사회경제적 요인, 자아존중감, 행복의 관계 및 매개효과 연구모형을 <그림 2>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이 적합한 모형인지 알아보기 위해 경합모형을 <그림 3>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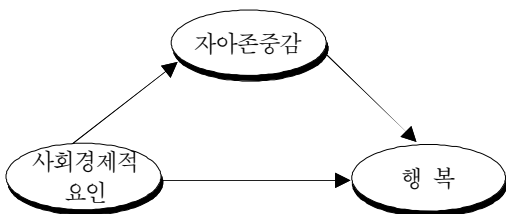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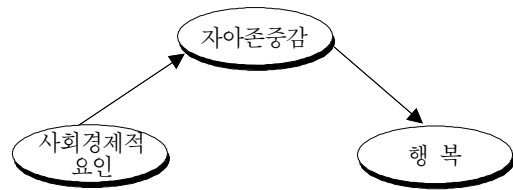


그림 3. 경합모형(완전매개모형)

연구가설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의 관계에서 개별성-관계성 발달 수준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 참가자

연구 참가자는 20~59세까지의 여성 529명으로 연구 참가자 선정 기준은 ① 20세 이상 59세 미만 ②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③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다. 연구 자료는 총 600사례 중, 배우자와 자녀요인에 관련이 없는 미혼, 이혼과 사별 사례, 극단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29사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은 30대(155명)~40대(246명)가 401명(76%)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기간은 21년~30년 이상이 261명(49.3%)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2명이 301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

줄이 242명(45.7%)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전업 주부가 241명(45.6%)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 월 소득은 160만원~250만원이 178명(33.6%), 260만원~350만원이 147명(27.8%)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하였다. 평균적으로 연령은 30대~40대 이고, 결혼기간은 21년~30년 이상으로 자녀는 2명 정도의 고졸학력의 전업주부로서 가구 월 소득은 160만원~350만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변 인 | 구 분 | 사 례 수 (%) |
|------|-----------------|-----------------------|
| 연 령 | 20 대 | 12(02.3) |
| | 30 대 | 155(29.3) |
| | 40 대 | 246(46.5) |
| | 50 대 | 116(21.9) |
| 결혼기간 | 10년 미만 | 116(21.9) |
| | 11~20년 | 149(28.2) |
| | 21~30년 이상 | 261(49.3) |
| 자 녀 | 1 명 | 79(14.9) |
| | 2 명 | 301(56.9) |
| | 3 명 이상 | 149(28.2) |
| 학 력 | 고졸 이하 | 90(17.0) |
| | 고졸 | 242(45.7) |
| | 전문대졸 | 53(10.0) |
| | 대재~대졸 대학원 이상 | 129(24.4) 13(02.5) |
| 직 업 | 무직, 시간제 | 66(12.5) |
| | 전업주부 | 241(45.6) |
| | 영업, 생산 | 44(08.3) |
| | 자영업 | 79(14.9) |
| | 사무직 | 44(08.3) |
| | 전문직 | 55(10.4) |
| 월 소득 | 150 만원 미만 | 80(15.1) |
| | 160~250 만원 | 178(33.6) |
| | 260~350 만원 | 147(27.8) |

| 변 인 | 구 분 | 사 례 수 (%) |
|------|------------|-----------|
| 월 소득 | 360~450 만원 | 62(11.7) |
| | 460 만원 이상 | 51(09.6) |
| 전 체 | | 529(100) |

연구도구

사회경제적 요인 척도

사회경제적 요인의 측정은 가장 일반적인 객관적 접근방법(김정자 외, 1998; 김명철, 1998; 김병성, 1982; 김영모, 1979)을 사용하여 학력, 직업,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기혼여성의 학력은 고졸이하(1점)~대학원이상(5점)으로, 직업은 김영모의 직업분류를 참조하여 무직(1점)~전문직(6점)으로, 수입은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350만원을 중심으로 150만원미만(1점)~460만원이상(5점)으로 측정하였다. 학력, 직업, 가구수입의 점수를 합산하여 기혼여성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요인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별성-관계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개별성과 관계성을 동시에 측정 할 수 있는 김동직(1999)의 개별성-관계성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을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자기 주장성 7문항, 독립성 4문항, 자율성 4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개별성 척도(15문항)와 친밀성 6문항, 친화성 6문항, 공감성 5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관계성 척도(15문항)로 총 30문항으로 되어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다. 척도의 내적 일관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김동직의 연구에서는 개별성 척도 $\alpha=.78$ 관계성 $\alpha=.77$ 이

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결과는 개별성 척도 $\alpha=.71$ 관계성 $\alpha=.70$ 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영자(1996)가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형 질문 5문항과 부정형 질문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의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긍정형 질문으로 된 5문항을 자존감1과 부정형 질문으로 된 5문항을 역산 채점하여 자존감2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이영자의 연구에서는 $\alpha=.80$ 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결과는 $\alpha=.79$ 이었다.

행복한 삶의 척도

김명소, 차경호, 임지영(2002)이 개발한 행복한 삶의 척도중에서 예비연구¹⁾에서 나온 변인

7가지(자기개발, 지위인정, 가족관계, 대인관계, 경제력, 건강, 외모)의 70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점)' 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김명소 등의 연구에서는 $\alpha=.66\sim.87$ 까지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결과는 $\alpha=.74\sim.90$ 까지였다.

연구절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보고형 지필식 검사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자료 수집은 지역사회문화센터와 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여성들에게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여 동의하는 개인들에게서 600사례를 수집하였는데 문항 미응답 30사례와 변량분석을 위한 사전분석 과정에서 극단치 41사례를 제외하여 총 529사례가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1) 예비연구에서는 20세~59세 기혼여성 5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생각과 느낌, 현재 생활에서 중요한 것,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자신이 행복해 지는데 중요하거나, 필요한 것을 질문하였다. 응답내용을 내용분석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들의 행복을 판단하는데 있어, 자녀와 남편 같은 가족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개발과 성취, 일에서의 인정이 중요하고, 외부 상황적 요인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만족할 만한 경제력과 외모가 중요하고, 대인관계에서는 부모와 친구,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에서 추출된 7가지 요인(가족, 자기개발, 건강, 지위인정, 경제력, 대인관계, 외모)을 기혼여성의 행복 구성개념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

연구자료 분석은 기혼여성 전체와 개별성-관계성 발달집단, 부분 발달집단, 미 발달집단²⁾별로 사회경제적 요인,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 행복과 행복의 하위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

2) 본 연구에서는 개별성-관계성의 발달수준에 따라 개별성-관계성에서 모두 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개별성-관계성 발달집단(N=159명)으로 개별성은 상이지만 관계성은 하인 경우와 개별성은 하이지만 관계성은 상인 경우에는 개별성-관계성 부분발달집단(N=240명)으로 개별성과 관계성에서 모두 아래 속하는 경우에는 개별성-관계성 미발달집단(N=130명)구분하였다.

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학력, 수입, 직업)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량분석의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사후검증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사회 경제적 요인,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의 각 하위변인이 행복과 행복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혼여성의 사회 경제적 요인, 개별성-관계성, 행복 변인간 관계 모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별성-

관계성 발달수준에 따라 발달집단, 부분발달집단, 미발달집단으로 나누어 다집단 분석(multiple group analysis)를 실시하였다. 기혼여성의 사회 경제적 요인, 자아존중감, 행복 변인간 관계 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의 유의도 검증을 Sobel 검증 중 Goodman(I) 검증(Baron & Kenny, 1986)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 변인 | x1 | x2 | x3 | x4 | x5 | x6 | x7 | x8 | x9 | x10 | x11 | x12 | x13 | x14 |
|-----|-------|--------|-------|-------|-------|-------|-------|-------|-------|-------|--------|-------|-------|------|
| x1 | — | | | | | | | | | | | | | |
| x2 | .26** | — | | | | | | | | | | | | |
| x3 | .29** | .14** | — | | | | | | | | | | | |
| x4 | .27** | .14** | .14** | — | | | | | | | | | | |
| x5 | .14** | .07 | .02 | .50** | — | | | | | | | | | |
| x6 | .22** | -.05 | .27** | .19** | .15** | — | | | | | | | | |
| x7 | .17** | -.00** | .01 | .24** | .24** | .11* | — | | | | | | | |
| x8 | .15** | .03 | .05 | .26** | .30** | .36** | .28** | — | | | | | | |
| x9 | .24** | .05 | .14** | .30** | .30** | .58** | .22** | .44** | — | | | | | |
| x10 | .41** | .15** | .25** | .30** | .25** | .60** | .20** | .49** | .69** | — | | | | |
| x11 | .13** | -.07 | -.00 | .26** | .30** | .35** | .32** | .37** | .55** | .42** | — | | | |
| x12 | .09* | -.11** | -.02 | .24** | .26** | .25** | .33** | .37** | .48** | .37** | -.64** | — | | |
| x13 | .11* | .04 | .11** | .30** | .23** | .18** | .10* | .11** | .24** | .18** | .05 | .12 | — | |
| x14 | .10** | .05 | .04 | .38** | .30** | .14** | .18** | .18** | .18** | .19** | .21** | .36** | .29** | — |
| M | 2.49 | 2.92 | 2.66 | 2.90 | 2.88 | 3.61 | 3.89 | 3.64 | 3.85 | 3.48 | 4.10 | 4.12 | 2.86 | 3.13 |
| SD | 1.10 | 1.53 | 1.16 | 0.34 | 0.42 | 0.85 | 0.68 | 0.67 | 0.57 | 0.72 | 0.55 | 0.52 | 0.40 | 0.40 |

x1 학력 x2 직업 x3 월소득 x4 자존감1 x5 자존감2 x6 경제력 x7 건강
 x8 외모 x9 자기개발 x10 지위인정 x11 가족관계 x12 대인관계 x13 개별성 x14 관계성
 * $p < .05$ ** $p < .01$ *** $p < .001$ $N = 512 \sim 529$

3)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fit)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홍세희, 2001).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전반적 부합도 지수에 관한 다중지표 제시를 권장하는 견해(Marsh, Balla, & McDonald, 1988)에 따라 χ^2 ,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Fit-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등 다중통계치들을 고려하여 매개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였다. 보통 TLI, CFI가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RMSEA는 .05(close fit)에서 .08(resonable fit) 사이인 경우 적당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김계수, 2005).

결 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요인, 자아존중감, 개별성-관계성, 행복의 하위요인별 기술 통계치를 보면 평균적으로 학력은 고졸, 직업은 전업주부, 수입은 160만원~2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존감1과 자존감2에서는 차이가 없고, 자신의 행복에는 대인관계, 가족관계, 건강, 자기계발 순으로 중요하다고 지각하고 있고 관계성이 개별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측정변인간의 상관을 보면 사회경제적 요인의 측정 변인인 학력은 자아존중감, 행복, 개별성-관계성의 측정변인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측

정 변인인 직업과 수입, 자아존중감, 행복, 개별성-관계성의 측정변인들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분석 측정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변인들 중 개별성, 대인관계 변인에서는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성-관계성 $\{F(4, 522)=6.11 p<.001\}$, 자아존중감 $\{F(4, 522)=8.03 p<.001\}$, 행복 $\{F(4, 522)=13.90 p<.001\}$ 의 측정변인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학력이 낮을수록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 행복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력에 따른 개별성-관계성 / 자아존중감 / 행복의 차이

| 변 인 | 학 력 | | | | | F (4, 522) |
|---------|------------------------|------------------------|------------------------|------------------------|------------------------|----------------------|
| | 고졸이하 (n=90) | 고졸 (n=242) | 전문대졸 (n=53) | 대재~ 대졸 (n=129) | 대학원이상 (n=13) | |
| 개 별 성 | 2.83(.40) | 2.81(.40) | 2.93(.39) | 2.93(.40) | 2.90(.33) | 2.32 |
| 관 계 성 | 2.97(.38) ^a | 3.13(.39) ^b | 3.14(.37) | 3.23(.42) ^b | 3.37(.42) | 7.01 ^{***} |
| 개별성-관계성 | 2.90(.32) ^b | 2.97(.28) ^b | 3.04(.28) | 3.08(.32) ^a | 3.14(.25) | 6.11 ^{***} |
| 자 존 감1 | 2.76(.37) ^a | 2.68(.32) | 2.98(.30) ^b | 3.02(.34) ^b | 3.12(.20) ^b | 10.71 ^{***} |
| 자 존 감2 | 2.81(.40) | 2.84(.39) | 3.00(.40) | 2.96(.47) | 2.93(.52) | 3.55 ^{**} |
| 자아존중감 | 2.79(.32) ^a | 2.85(.31) | 2.99(.29) ^b | 2.99(.36) ^b | 3.03(.32) | 8.03 ^{***} |
| 경 제 력 | 3.30(.92) ^b | 3.57(.83) ^b | 3.66(.91) | 3.86(.71) ^a | 4.00(.73) | 6.90 ^{***} |
| 건 강 | 3.74(.72) ^b | 3.83(.66) ^b | 4.02(.72) | 4.06(.67) ^a | 3.99(.50) | 4.14 ^{**} |
| 외 모 | 3.48(.71) | 3.60(.65) | 3.78(.67) | 3.75(.63) | 3.85(.53) | 3.34 ^{**} |
| 자기계발 | 3.71(.51) ^b | 3.77(.55) | 4.06(.57) ^b | 3.97(.58) ^b | 4.51(.46) ^b | 10.85 ^{***} |
| 지위인정 | 3.12(.67) ^a | 3.32(.68) | 3.84(.59) ^b | 3.81(.61) ^b | 4.35(.44) ^b | 28.67 ^{***} |
| 가족관계 | 4.01(.56) | 4.06(.53) | 4.22(.52) | 4.19(.55) | 4.25(.50) | 2.70 [*] |
| 대인관계 | 4.02(.52) | 4.12(.49) | 4.25(.54) | 4.14(.54) | 4.29(.45) | 2.05 |
| 행 복 | 3.62(.47) ^a | 3.75(.41) | 3.98(.46) ^b | 3.97(.42) ^b | 4.18(.27) ^b | 13.90 ^{***} |

주: 각 열에서 a, b 첨자가 다른 집단은 사후검증(scheffe-test)결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05$ ** $p<.01$ *** $p<.001$

가구 월수입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분석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 월수입에 따른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존감1($F(4, 513)=3.61$, $p<.01$), 행복 ($F(4, 513)=4.82$, $p<.001$)과 행복의 하위 변인인 경제력($F(4, 513)=10.81$, $p<.001$), 자기계발($F(4, 513)=3.30$, $p<.01$), 지위인정($F(4, 513)=9.0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 월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기혼여성은 가구 월수입이 260만원 이상인 기혼여성들보다 경제력이 행복에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가구 월수입이 450만원 이상인 기혼여성들은 150만원~350만원 미만인 기혼여성들 보다 자기계발과 지위인정이 행복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기혼여성들은 가구 월수입이 450만원 이상인 기혼여성들에 비해

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분석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에 따라 관계성, 개별성-관계성, 자존감2, 행복과 행복의 하위변인인 건강, 외모, 가족관계, 대인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성-관계성 하위 변인인 개별성($F(5, 523)=3.92$, $p<.01$), 자아존중감($F(5, 523)=4.35$, $p<.001$), 행복의 하위변인인 경제력($F(5, 523)=2.76$, $p<.001$), 자기계발($F(5, 523)=2.61$, $p<.05$), 지위인정($F(5, 523)=6.9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업주부인 기혼여성은 자영업, 사무직, 전문직의 기혼여성에 비해 긍정적 자존감인 자존감1에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직 기혼여성은 전업주부, 영업/생산직, 자영업, 사무직 기혼여성에 비해 지위인정이 행복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구 월수입에 따른 개별성-관계성 / 자아존중감 / 행복의 차이

| 변인 | 수입(단위: 만원) | | | | | F (4, 513) |
|---------|------------------------|------------------------|------------------------|------------------------|------------------------|----------------------|
| | 150미만 (n=80) | 160~250 (n=178) | 260~350 (n=147) | 360~450 (n=62) | 460이상 (n=51) | |
| 개별성 | 2.80(.40) | 2.83(.36) | 2.86(.46) | 2.94(.36) | 2.94(.38) | 1.84 |
| 관계성 | 3.08(.42) | 3.12(.41) | 3.19(.38) | 3.09(.40) | 3.16(.39) | 1.20 |
| 개별성-관계성 | 2.94(.32) | 2.97(.27) | 3.02(.34) | 3.02(.30) | 3.05(.28) | 1.57 |
| 자존감1 | 2.77(.33) ^a | 2.90(.33) ^b | 2.92(.37) | 2.94(.31) | 2.97(.31) ^b | 3.61 ^{**} |
| 자존감2 | 2.83(.40) | 2.88(.41) | 2.91(.38) | 2.88(.48) | 2.86(.49) | 0.54 |
| 자아존중감 | 2.80(.31) | 2.89(.32) | 2.92(.33) | 2.91(.33) | 2.91(.34) | 1.84 |
| 경제력 | 3.22(.88) ^a | 3.52(.85) | 3.75(.75) ^b | 3.83(.83) ^b | 4.05(.71) ^b | 10.81 ^{***} |
| 건강 | 3.74(.72) | 3.95(.66) | 3.95(.75) | 3.76(.61) | 3.89(.58) | 2.18 |
| 외모 | 3.55(.78) | 3.68(.63) | 3.63(.65) | 3.60(.56) | 3.78(.71) | 1.14 |
| 자기계발 | 3.76(.52) ^b | 3.83(.61) ^b | 3.85(.54) | 3.88(.57) | 4.12(.56) ^a | 3.30 ^{**} |
| 지위인정 | 3.20(.77) ^b | 3.42(.73) ^b | 3.51(.62) ^b | 3.71(.69) | 3.86(.65) ^a | 9.06 ^{***} |
| 가족관계 | 4.06(.59) | 4.15(.54) | 4.10(.54) | 3.96(.55) | 4.19(.50) | 1.70 |
| 대인관계 | 4.12(.58) | 4.16(.53) | 4.09(.51) | 4.02(.46) | 4.18(.44) | 1.00 |
| 행복 | 3.66(.48) ^a | 3.82(.45) | 3.84(.42) | 3.82(.45) | 4.01(.41) ^b | 4.82 ^{***} |

주: 각 열에서 a, b 첨자가 다른 집단은 사후검증(scheffe-test)결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05$ ** $p<.01$ *** $p<.001$

사회경제적 요인,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과 행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하위변인이 행복과 행복의 하위변인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분석결과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행복은 사회경제적요인의 하위변인인 학력에 의해 8.7%가 설명되었고 예언변인들의 행복 예언정도는 학력($\beta=.295, p<.001$)이 가장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즉, 기혼여성의 경우 학력을 행복의 중요한 변인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성-관계성 하위 요인이 행복과 행복의 하위변인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분석 결과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행복은 개별성-관계성의 하위변인인 관계성에 의해 8.5%, 개별성에 의해 2.9%가 설명되며 전체 연구 변

인들의 설명량은 11.4%였다. 기혼여성의 행복은 관계성($\beta=.266, p<.001$)이 가장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즉 기혼여성의 경우 자신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각하고 남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계성이 높을수록 행복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이 행복과 행복의 하위변인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분석결과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행복은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자존감1에 의해 13.1%, 자존감2에 의해 4.3%가 설명되며, 전체 연구변인들의 설명량은 17.4%였다. 예언변인들의 행복 예언정도는 자존감1($\beta =.241, p<.001$), 자존감2($\beta =.239, p<.001$) 순으로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표 5. 직업에 따른 개별성-관계성 / 자아존중감 / 행복의 차이

| 변 인 | 직업 | | | | | | F (5, 523) |
|---------|--------------------|------------------------|------------------------|-------------------------|------------------------|------------------------|---------------|
| | 무직 / 시간제 (n=66) | 전업주부 (n=241) | 영업 / 생산직 (n=44) | 자영업 (n=79) | 사무직 (n=44) | 전문직 (n=55) | |
| 개 별 성 | 3.01(.40) | 2.79(.38) | 2.81(.33) | 2.87(.41) | 2.93(.48) | 2.92(.41) | 3.92** |
| 관 계 성 | 3.16(.49) | 3.12(.40) | 3.05(.36) | 3.08(.40) | 3.23(.43) | 3.22(.33) | 1.73 |
| 개별성-관계성 | 3.09(.36) | 2.95(.30) | 2.93(.25) | 2.98(.29) | 3.08(.33) | 3.07(.25) | 3.82 |
| 자 존 감1 | 2.98(.40) | 2.83(.34) ^a | 2.84(.33) | 2.86(1.29) ^b | 3.06(.33) ^b | 3.04(.30) ^b | 7.09*** |
| 자 존 감2 | 2.93(.43) | 2.85(.42) | 2.78(.41) | 2.93(.35) | 2.89(.50) | 2.99(.42) | 1.92 |
| 자아존중감 | 2.96(.37) | 2.84(.33) ^a | 2.81(.32) | 2.89(.27) | 2.98(.33) | 3.02(.33) ^b | 4.35*** |
| 경 제 력 | 3.77(.80) | 3.65(.86) | 3.42(.00) | 3.37(.87) | 3.52(.74) | 3.77(.76) | 2.76** |
| 건 강 | 3.92(.71) | 3.89(.68) | 3.82(.70) | 3.88(.68) | 4.03(.72) | 3.84(.65) | 0.55 |
| 외 도 | 3.61(.78) | 3.62(.62) | 3.68(.69) | 3.66(.69) | 3.61(.72) | 3.70(.66) | 0.21 |
| 자기계발 | 3.96(.62) | 3.76(.59) | 3.82(.53) | 3.90(.51) | 3.72(.52) | 4.03(.57) | 2.61* |
| 지위인정 | 3.59(.78) | 3.39(.72) ^b | 3.39(.65) ^b | 3.34(.71) ^b | 3.47(.62) ^b | 3.97(.63) ^a | 6.99*** |
| 가족관계 | 4.16(.53) | 4.14(.56) | 4.04(.41) | 3.99(.54) | 3.96(.72) | 4.14(.43) | 6.99 |
| 대인관계 | 4.22(.60) | 4.15(.51) | 4.11(.45) | 4.08(.51) | 4.00(.61) | 4.05(.37) | 1.33 |
| 행 복 | 3.89(.50) | 3.81(.45) | 3.76(.43) | 3.74(.42) | 3.76(.52) | 3.93(.39) | 1.70 |

주) 각 열에서 a, b 첨자가 다른 집단은 사후검증(scheffe-test)결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05$ ** $p<.01$ *** $p<.001$

즉, 기혼여성의 경우 자신을 가치 있고 좋은 점이 많으며 남들만큼 능력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패배자라고 느끼지 않고 자랑거리가 많고 쓸모 생각 할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성-관계성의 조절효과 검증

개별성-관계성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기혼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성-관계성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성-관계성 발달집단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beta=.53, p<.001$)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성-관계성 부분발달 집단의 경우도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beta=.33, p<.05$)으로 나타났다. 개별성-관계성 미발달집단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beta=.26, p>.05$)으로 나타났다. 즉, 개별성-관계성 발달수준에 따라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성-관계성 발달집단과 부분발달집단의 표준화 계수의 유의성을 집단 간 차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차이 값이 1.98로 1.96보다 크게 나타나 집단 간 표준화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별성-관계성 발달집단과 부분발달집단은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행복으로 가는 경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발달집단과 미발달집단의 표준화 계수의 유의성을 집단 간 차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차이 값이 2.21로 집단 간 표준화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달집단

과 미발달집단은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행복으로 가는 경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부분발달집단과 미발달집단의 표준화 계수의 유의성을 집단 간 차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차이 값이 .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분발달집단과 미발달집단은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행복으로 가는 경로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개별성-관계성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다집단 분석결과

| 집 단 | 비표준화 계수 | 표준 오차 | 표준화 계수 | CR |
|------------|---------|-------|--------|---------|
| 발달집단 | .44 | .12 | .53 | 3.61*** |
| 부분발달집단 | .21 | .10 | .33 | 2.00* |
| 미발달집단 | .11 | .08 | .26 | 1.33 |
| 발달-부분발달차이 | - | - | - | 1.98* |
| 발달-미발달 차이 | - | - | - | 2.21* |
| 부분발달-미발달차이 | - | - | - | 0.71 |

* $p < .05$, *** $p < .001$. CR(Critical Ratio)= $t > 1.96$

사회경제적 요인 점수별로 사회경제적 요인 저집단(M-1SD), 사회경제적 요인 평균집단(M), 사회경제적 요인 고집단(M+1SD)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개별성-관계성 발달집단, 부분발달집단, 미발달집단으로 나누어 회귀선을 구하여 행복 수준을 살펴본 결과가 그림 4이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성-관계성 발달집단, 부분발달집단, 미발달집단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행복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성-관계성 발달집단과 부분발달집단, 발달집단과 미발달집단 간에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행복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개별성-관계성 발달집단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평균인 상황에서 행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개별성-관계성 부분발달집단과 미발달집단은 사회경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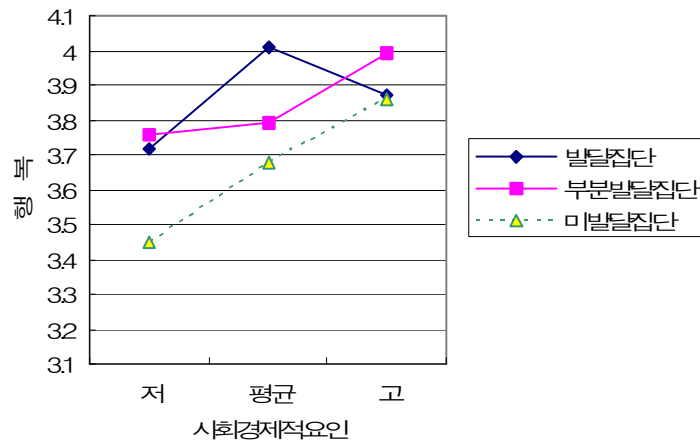


그림 4.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별성-관계성의 상호작용

요인이 높은 상황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낮은 상황에서 개별성-관계성 발달집단과 부분발달집단은 미발달집단보다 더 행복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이 낮은 상황에서 개별성-관계성 발달수준이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에는 사회경제적 요인, 자아존중감, 행복의 세 개 잠재변수와 사회경제적 요인, 자아존중감, 행복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측정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 자아존중감, 행복의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을 설정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 표 8, 그림 5와 같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은 $\chi^2=396.21$, $df=51$, $p<.001$ 로 χ^2 값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인 TLI=.97,

CFI=.98로 기준치인 .90이상이며 RMSEA=.06으로 허용치인 .08이하로 연구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합모형 또한 $\chi^2=411.90$, $df=52$, $p<.001$ 로 χ^2 값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인 TLI=.97, CFI=.98로 기준치인 .90이상이며 RMSEA=.06로 허용치인 .08이하로 경합 모형도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관계모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모형 간 χ^2 값의 차이를 통해 모형 비교를 시도한 결과 χ^2 값의 차이가 15.69로 자유도 1일 때의 임계값인 3.8보다 커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합모형보다 연구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7.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

| 모형 | χ^2 | df | TLI | CFI | RMSEA |
|------|-----------|----|-----|-----|-------|
| 연구모형 | 396.21*** | 51 | .97 | .98 | .06 |
| 경합모형 | 411.90*** | 52 | .97 | .98 | .06 |
| 차이 | 15.69 | 1 | | | |

*** $p < .001$

연구모형의 구조경로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에서 선정된 각 내생변인들의 다중상관자승은 자아존중감 .16, 행복 .32로, 행복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외생변인에 의해 영향 받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7,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에 제시된 3개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하게 나타난 각각의 경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요인 → 자아존중감 경로의 경우 기혼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beta=.40, p<.001$)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 → 행복 경로의 경우 기혼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이 행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beta=.41, p<.001$)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경제적 요인 → 행복 경로의 경우 기혼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beta=.25, p<.01$)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결과 $Z=3.44, p<.001$ 에서 유의하여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구 모형의 구조경로

| 구조경로 | 비표준화 계수 | 표준 오차 | 표준화 계수 | CR |
|------------------|---------|-------|--------|---------|
| 사회경제적 요인 → 자아존중감 | .12 | .02 | .40 | 4.32*** |
| 자아존중감 → 행복 | .85 | .15 | .41 | 5.53*** |
| 사회경제적 요인 → 행복 | .16 | .05 | .25 | 3.23** |
| 다중상관자승 | | | | |
| 자아존중감 | .16 | | | |
| 행복 | .32 | | | |

** $p<.01$, *** $p<.001$, CR(Critical Ratio)= $t>1.96$, N=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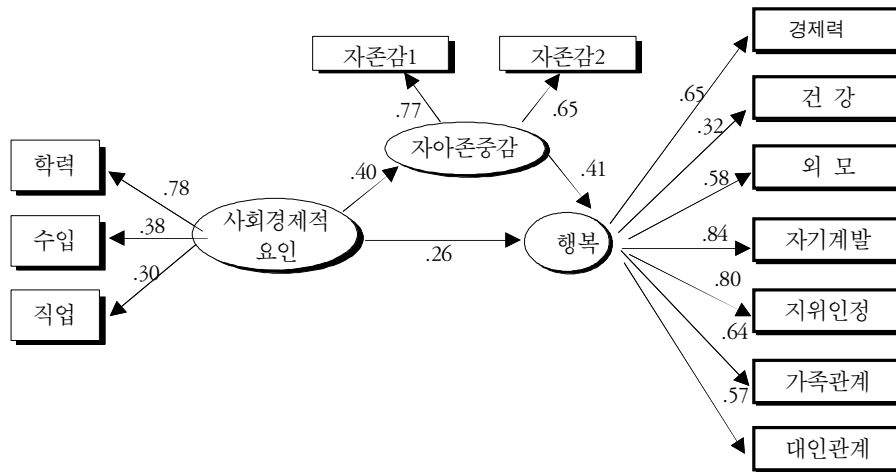


그림 5. 자아 존중감 매개효과 연구모형의 표준화 계수

논 의

지금까지 여성들의 행복에 대한 접근이 대부분 남성과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남성과 비교 집단이 아닌,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행복에 대한 이해와 여성 내부의 차이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성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개별성-관계성 발달수준에 따라 발달집단, 부분발달집단, 미발달집단으로 구분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행복을 종속변인으로 개별성-관계성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조절효과와 사회경제적 요인을 예언변인으로 행복을 결과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20~50대의 기혼여성 529명이었다. 자료 분석은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요인,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 행복과 행복의 하위변인간의 상관관계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학력/가구 월소득/직업)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요인,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의 각 하위변인이 행복과 행복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요인, 개별성-관계성, 행복 변인간 관계모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별성-관계성 발달수준에 따라 다집단 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요인, 자아존중감, 행복 변인간 관계모형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 행복의 하위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력은 모든 측정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직업, 가구 수입은 개별성-관계

성, 자아존중감, 행복의 하위변인들과 부분적인 상관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에 관한 여러 연구(김명소 외, 1999; 김연희, 김기순, 2002; 김은정 외, 1999; Diener & Diener, 1995; Lucas, Diener, & Suh, 1996; Potter & Gosling, 2001; Tait, 1989)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혼여성의 행복이 사회경제적 요인 같은 객관적 변인과의 단순한 상관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인인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과도 상관관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간의 관련 정도를 단순히 파악하는 것보다 심리적 변인인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 행복의 변인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기혼여성들은 학력은 대졸, 가구 수입은 460만원 이상, 직업은 전문직 일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 학력은 고졸이하, 가구 수입은 150미만, 직업은 전업주부일 때 기혼여성은 행복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여성의 개별성-관계성의 정도는 학력, 가구 수입과는 관련이 없지만 개별성은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학력, 직업과는 관련이 있지만 가구 수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혼여성의 행복의 정도는 기혼여성의 학력, 가구 수입과 관련이 있지만 직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참가자 대부분이 결혼하여 전업주부이거나 주부이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에게 직업은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Campbell(1981)의 연구와 일치하고, 행복에 미치는 학력의 긍정적 효과가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 더 크다는 연구 결과(이순형, 1991; 이연숙 외, 1991; Freudiger, 1979; Glenn & Weaver, 1981)와 일치한다. 또한 학력이 높은 취업주부들은 학력이 낮은 취업주부들에 비해 자신의 직업에 더욱 만족하고 역할갈등을 적게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임정빈, 정혜정, 1987)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행복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 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도 행복과 관련되지만, 객관적인 소득도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영향 미친다는 여러 연구결과(김은정 외, 1999; 이연숙 외, 1991; Freudiger, 1979; Manicini & Orthner, 1980)와 일치한다. 직업의 여부와 직업에 대한 만족이 행복과 관련 있다는 Tait(1989)의 연구와 일치한다.

사회경제적 요인, 개별성-관계성,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이 행복과 행복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첫째,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행복은 학력에 의해 가장 유의미하게 예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행복은 학력, 직업, 가구 수입과 같은 상향적인 요소에 의해 약 8~15%정도가 설명된다는 여러 연구(조명한, 김상균, 1994;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Diener 1984;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와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행복은 자신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각하고 남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계성에 의해 가장 유의미하게 예언되었다. 셋째,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행복은 자신을 가치 있고 좋은 점이 많으며 남들만큼 능력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존감1에 의해 가장 유의미하게 예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행복은 성격, 자아개념, 자

아존중감, 적응능력과 같은 하향적인 요소에 의해 약 50% 정도가 설명된다는 여러 연구(Diener, 1994; Diener & Lucas, 1999; Myers & Diener, 1995)와 유사하다. 또한 기혼여성의 행복을 예언하는 예언변인 중에서 가장 설명량이 높게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거나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밝혀진 여러 연구들(김연희, 김기순, 2002; Lucas, Diener, & Suh, 1996; Potter & Gosling, 2001)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생활 만족도 간의 정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김경신, 김오남, 1998)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기혼여성의 행복은 높은 학력과 관계성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간의 관계에서 개별성-관계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개별성-관계성의 조절효과를 의미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별성-관계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여 개별성-관계성의 발달수준에 따라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이 행복간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개별성-관계성이 발달한 기혼여성이 미발달한 기혼여성보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간의 관계가 더 낮았다. 이는 개별성-관계성이 발달한 기혼여성이 미발달한 기혼여성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이 낮은 상황에서 개별성-관계성이 발달한 기혼여성은 미발달한 기혼여성보다 더 행복하여 개별성-관계성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낮은 상황에서 조절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조절효과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간의 관계가 개별성-관계성의 발달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성-관계성의 발달

수준에 따라 심리적 적응과 일상적 창의력 자기위로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여러 연구(김동직, 1999; 정은이, 2002; 한기연, 2003)와 유사하다. 조절효과 검증은 개별성-관계성 변인이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간의 관계에서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주어 개별성-관계성의 발달이 기혼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현실적 한계를 완화할 수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감이 행복에 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의 행복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행복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과 정적 관계를 통해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기혼여성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로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의 관계를 매개하여 행복을 주관적 관점에서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보다 삶의 질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매개하는 경로를 밝힌 연구(모의회, 김재환, 2002; 최미례, 이인혜, 2003; 최외선, 손현숙, 1991)와 일치한다. 또한 연령이나 학력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된다는 연구(양복순, 1998; Traft, 1985)와 일치하고, 직업의 여부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한다는 연구(김혜영, 고효영, 1997; 이길자, 1991)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거나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밝혀진 여러 연구(김연희, 김기순, 2002; Campbell, 1976; Lucas, Diener, & Suh, 1996; Kwan, Bond, & Singelis, 1997; Potter & Gosling, 2001; Traft, 198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기혼여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김정자 외(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정서와 적응의 측면에 대한 매개역할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가 지지됨으로서 기혼여성이 행복추구과정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입증하였을 뿐 아니라 행복에 대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매개효과 검증은 자아존중감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같은 상황적 요소에 대해 개입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행복증진을 위한 상담과 치료, 교육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토대로 기혼여성의 행복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혼여성의 행복을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기혼여성들의 개별성-관계성 발달수준에 따라 사회경제적 요인과 행복의 관계에서 조절의 변인으로 작용하는 경로가 다르다는 것과 사회경제적요인과 행복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 기대 효과는 첫째, 상담인구의 대부분을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행복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력과 개별성-관계성의 발달 수준에 따른 조

절효과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을 토대로 여성상담의 이론을 제시 할 수 있다
는 점이다. 둘째,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요변인을 확인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관계지향적인 특성과 성숙한 인간적 특성과의
접점을 시도하여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모
델을 제시 할 수 있다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본 연구에 참가한 기혼여성들이 광주, 전
남, 전북 일부지역에서 선발되어 인구사회학적
분포가 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지역적 분포가 골고
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는
횡단적 자료에 근거해서 여성의 행복 모형과
조절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토대로 여성의 행복모
형과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신, 김오남 (1998). 편모의 스트레스와 심
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6, 19-34.
김계수 (2005).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
울: 테이터솔루션.
김동순 (1992). 성인 여성의 심리. 신경정신의
학, 32, 23-27.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
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
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
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40.

김명소, 차경호, 임지영 (2002). 대학생이 생각
하는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분석. 2002 한국
심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김명소, 성은현, 김혜원 (1999). 한국 기혼여성
(아줌마)들의 성격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41-55.
김명철 (199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
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13, 135-150.
김병성 (1982). 학교교육과 교육격차. 교육사회
학적 접근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 개발원.
김숙영, 전은영, 김귀분, 서연옥 (2002). 중년여
성의 자아실현과 영향요인. 성인간호학
회지, 14(4), 602-611.
김연희, 김기순 (2002).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한국노인복지연
구, 가을호, 157-189.
김영모 (1979). 서울시 사회계층과 계급구조에
관한 연구. 김재원 박사 회갑기념 논문
집. 서울: 을유문화사.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지: 여성, 4(1), 1-14.
김지경, 김명소 (2003). 한국남녀의 관계적 자
아에 관한 연구. 2003년 춘계여성 심리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5-50.
김정자, 정영숙, 김경연, 심혜숙, 최원철, 최순.
김선희 문소정 (1998). 한국 기혼여성의
일상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II). 여성학
연구, 8(1), 1-24.
김혜원, 김명소 (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5(1), 27-41.
- 김혜영, 고효영 (1997). 중년기 여성의 우울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 간호학회지, 3(2), 117-138.
- 모의회, 김재환 (2002).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87-900.
- 신희석 (2002). 생의 의미가 중년 주부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1), 29-44.
- 양복순 (1998). 중년 여성의 영적 안녕, 자아개념, 우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지영, 김명자 (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51-165.
- 이길자 (1991). 일부 지역 중년기 여성의 자아개념과 우울 및 자각증상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애, 김정화 (1998). 삶의 질: 여성. 목표대학교 여성문제 연구소.
- 이순형 (1991). 취업여성의 자녀보육형태와 심리적 적응. 여성연구, 9(4), 81-110.
-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 (1991). 기혼 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 생활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대 박사학위 논문.
- 이정균 (1991). 한국 정신장애의 역학적 조사 연구(VII). 정신의학, 16, 1-19.
- 임정빈, 정혜정 (1987).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3.
- 정은이 (2002). 일상적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 및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명환, 김상균 (1994). 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II.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 과학연구소.
-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 채정민, 이종한 (2004).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8(1), 41-63.
- 최미례,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희선, 손현숙 (1991). 도시주부의 자아긍정감과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 29권.
- 최효일, 조혜자 (1999). 한국 중년 여성의 관계적 자아표상-여성적, 남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129-140.
- 한기연 (2003). 개별성-관계성과 자기위로능력 관계에서 자의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75-89.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황원준, 정용균, 김종주 (1995). 정신과에 처음 내원한 환자의 6개월 후 추적조사. 신경정신의학, 34, 59-69.
- Argyle, M. (2001). *Psychology and religion: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eister, R. F., Dori, G. A., & Hastings, S. (1998). The self.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pp. 680–74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yatzis, R. E. (1973). Affiliation motivation. In D. C. McClelland & R. S. Steele (Eds.), *Human motivation: A book of readings* (pp.53–81).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lark, A. E. (1996). *Job satisfaction and gender. why are women so happy at work?* DEELSA, France.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 Hill.
- Diener, E., & Biswas-Diener, R. (2000).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will money make us happy?* University of Illinois, unpublished.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 measure of globa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Freudiger, P. T. (1979). *Life satisfaction of among American woman. Doctoral Dissertation of North Texas State University*.
- Ginter, E. J., Glauser, A., & Richmond, B. O. (1996). Loneliness, social support, and anxiety among two south pacific cultures. *Psychological Reports*, 74, 875–879.
- Glenn, N. P., & Weaver, C. N. (1981). The changing relationship of marital status to reported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317–324.
- Graziano, W. G., Jensen-Campbell, L. A., & Finch, J. F. (1997). The self as a mediator between personal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392–404.
- Guisinger, S., & Blatt, S. J. (1994).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Evolution of a fundamental dialectic. *American Psychologist*, 49, 104–111.
- Heady, B., & Wearing, A. (1992). Personality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Toward a dynamic: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95–910.
- Judge, T. A., & Watanabe, S. (1993). Another look at the job satisfaction–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939–948.

- Kessler, R. C. (1982). A disseggre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757-764.
- Kwan, S. Y., Bond, M. H., & Singelis, T. M. (1997). Pancultural explanation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38-1051.
- Lorenz, F., Conger, R., Simon, R., & Whitebeck, L. (1991). Economic pressure and marital quality: An illustration of method variance problem in causal modeling of family proc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375-388.
- Lu, L. (2000). Gender and conjugal differenc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0, 132-141.
- Lucas, R.,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16-628.
- Manicini, J. A., & Orthner, D. K. (1980). Situational influences on leisure satisfaction and moral in old ag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8, 466-471.
- Marsh, H. W., Balla, J. R., & McDonald, R. P. (1988). Goodness-of-fit cognition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103, 391-411.
- McAdams, D. P., & Constantian, C. A. (1983). Intimacy and affiliation motives in daily living: An experience sampling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851-861.
- Myers, D. G. (2000). The funds, friends, and faith of happy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55, 56-67.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Nolen-Hoeksema, S., & Rusting, C. L. (1999). Gender differences in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Eds.),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330-350. New York: Russell Sage.
- Potter, J., & Gosling, S. D. (2001). Personality correlates of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5, 463-482.
- Rokach, A., Orjeck, T., Cripps, J., Lackovic-Grgin, K., & Penezic, Z. (2001). The effects of culture on the meaning of lonel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3, 17-3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 Satir, V. (1967).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Tait, M., Padgett, M. Y., & Baldwin, T. T. (1989).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 reexamination of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and gender effects as a function of the date of the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 502-507.
- Traft, L. D. (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77-84.
- West, C. G., Reed, D. M., & Gildengorin, G. L. (1998). Can money buy depressive symptoms

in an affluent older popul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6, 49–57.

1 차원고접수 : 2007. 4. 23.
수정원고접수 : 2007. 6. 5.
최종게재결정 : 2007. 6. 15.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Married Women's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Eun-Eui Chung

Ann-Young Noh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socio-economic factors and happiness. The mediating effects of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re also be explo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proved that married women's individuality-relatedness acted as a moderating variable.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ity-relatedness means that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happiness differs with the level of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low individuality-relatedness as a vulnerable factor in the onset of happiness whereas high individuality-relatedness as a buffering factor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factors. Second, it was proved that self-esteem acted as a mediating variable. Also,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means that not only socio-economic factors influences on happiness directly but also socio-economic factors higher self-esteem that leads to happiness subsequently. Therefore, in order to help married women's to increase their happiness, various counseling strategies and educational programs are required to improve their self-esteem and reciprocal development of individuality-relatedness

Key words: social economic factor, happiness, individuality-relatedness, self-esteem, moderating effect, mediating effect